

#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 양육 태도의 매개적 역할을 고려하여

정 수 진<sup>1)</sup> · 최 정 윤<sup>2)</sup>

위드정신과의원 임상심리과,<sup>1)</sup> 영성생활연구소<sup>2)</sup>

## Effects of Maternal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arenting Stress on a Child's Self-Concept : Parenting Style as a Mediating Factor

Soojin Chung, M.A.<sup>1)</sup> and Jeongyoon Choi, Ph.D.<sup>2)</sup>

<sup>1)</sup>WITH Dr. Kim's Psychiatric Clinic, Seoul, Korea

<sup>2)</sup>Institute for Catholic Lay Spirituality, Seoul, Korea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aternal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especially education and employment, and parenting stress on the child's self-concept. Attention was also paid to the mediating impact of parenting sty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ternal variables and a child's self-concept.

**Methods** : A questionnaire and three scales were completed by fifth graders and their mothers, and 270 sets of paired data were analyzed.

**Results** : The results showed that mothers with higher education experienced less child-related parenting stress, were perceived to be more achievement-oriented and rational by their children, and also had children with more positive self-concept.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education and child's self-concept was mediated by the rationality dimension of parenting style. Maternal employment was not related to parenting stress, parenting style and most aspects of the child's self-concept. Lastly, child-related parenting stres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child's self-concept, and this effect was mediated by the warmth and rationality dimensions of parenting style.

**Conclusion** : Parenting style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hild's self-concept and maternal education and child-related parenting stress.

**KEY WORDS** : Maternal Education · Parenting Stress · Parenting Style · Self-Concept.

## 서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의 질은 아동기 전체의 발달과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어머니-자녀 관계는 아동의 사회성, 정서적 안정성, 학업적 성취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특성 중 여러 인구사회학적, 심리적 변인들이 관심을 받아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학력과 취업여부, 그리고 양육스트레스에

주목하여 이들 변인이 아동의 심리적 특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학력, 취업여부는 양육과정과 자녀의 심리적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들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어머니의 높은 학력에 따른 긍정적 영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성인 자녀들이 과거 자신에 대한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현재에도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보다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높은 신뢰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1)</sup> 또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수용적 태도를, 낮을수록 거부적 태도를 많이 나타낸다고 조사되고 있다.<sup>2)</sup>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남재희<sup>3)</sup>는 대졸 이상의 어머니가 높은

접수완료 : 2007년 11월 5일 / 심사완료 : 2007년 12월 28일

Address for correspondence : Soojin Chung, M.A., WITH Dr. Kim's Psychiatric Clinic, 174-12 Seokchon-dong, Songpa-gu, Seoul 138-844, Korea

Tel : +82.2-424-7579, Fax : +82.2-416-7579

E-mail : szzee@naver.com

양육 효능감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양육 태도에서는 대졸 이하의 어머니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어머니의 학력과 양육스트레스 수준 간에도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데, 고학력일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sup>4,5)</sup>가 있는 반면, 김기현<sup>6)</sup>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고학력 부모일수록 자녀에 대한 적절한 기대, 양육 지식, 경제적 능력, 스트레스 조절 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서 더 적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어머니의 학력이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 자녀의 자아개념과 어떤 연관을 맺는지 종합적으로 알아보고, 두번째로 어머니의 학력과 자녀의 자아개념 간 관계를 양육 태도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차원의 양육태도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두번째, 어머니의 취업은 모 자신의 심리, 가족 관계, 자녀 특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취업은 양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많았고, 일부의 연구에서만 비취업 상태의 양육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취업이 양육 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고,<sup>7)</sup> 양육 스트레스 수준과도 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있었는데,<sup>8)</sup> 일부에서는 비취업모 자녀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높은 학업성적을 보고한 경우도 있다.<sup>9)</sup> 외국의 연구에서도 대부분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특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어머니의 취업과 여아 자녀의 성취 및 적응, 성취목표 간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고,<sup>10)</sup> 빈곤집단과 편모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의 성취 및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sup>11,12)</sup> 또 중산계층 취업모의 남아 자녀에게서 보다 낮은 인지점수가 나오는 상반된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sup>13,14)</sup>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 자녀의 자아개념에 차이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어머니의 심리상태를 측정하는 변인으로서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역할 수행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겪는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정하며, 어머니 자신과 양육태도, 자녀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자녀에게 고향을 치거나 압력을 가하는 등의 과잉반응적 양육을 할 위험이 높고,<sup>15)</sup> 우울, 불안 등으로 어머니의 정신건강을 악화시켜 자율성, 반응성, 애정 같은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저해하며,<sup>16)</sup> 자녀들의 사회적 유능성에 손상을 입혀 내면화, 외현화 행동장애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sup>17)</sup>

이렇게 양육스트레스는 부정적 양육태도를 통해 자녀의 적응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양육스

트레스가 자녀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양육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가 이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변인이 되는지, 또 어떤 차원의 양육태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Rohner<sup>18)</sup>는 부모의 거부적 태도가 부정적 자아개념, 비행, 적개심, 부정적 세계관, 대인관계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우울증과 비행 같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도 부모의 거부, 통제, 비온정성과 관련되었다고 보고된다.<sup>19,20)</sup>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절대적 영향을 받는 아동기 자아개념을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연관 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자아개념은 자신에 대한 지각, 관념, 태도로 정의될 수 있으며, 다차원적 측면으로 구성되었다는 주장이 지지를 얻고 있는데,<sup>21)</sup> 본 연구에서도 일반적, 학교 및 성취, 사회, 가족, 정서적 자아개념의 다차원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방 법

### 1. 연구대상

연구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2개 초등학교, 5학년의 남녀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목적상 이혼, 사별, 재혼 가정과 장애아 포함 가정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고, 부실한 응답 사례를 제외한 총 270사례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 2. 평가 도구

#### 1) 인구 사회학적 정보를 위한 질문지

부모의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수입, 직업적 정보, 취업/비취업 상태에 대한 만족도 등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 2) 양육 스트레스 척도

양육 스트레스 측정을 위해 서혜영<sup>22)</sup>이 번안하고 수정한 Abidin<sup>23)</sup>의 Parenting Stress Index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세 하위 척도로 구성되었다. (1) 모 특성 양육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부모 역할, 사회적 고립, 역할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2)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스트레스는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며, (3)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녀의 요구, 기분, 활동 등에 대한 모의 부정적 지각을 내용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하위 척도를 '자녀 관련 양육 스트레스'로 통합하여 보고 이를 첫 번째의 '모 관련 양육 스트레스'와 대비하였다.

### 3) 양육 태도 지각 검사

오성심과 이종승<sup>24)</sup>이 제작한 본 척도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조사한다. 양육태도는 4차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태도를 시사한다. (1) 애정-적대 차원에서는, 부모의 애정, 수용성, 무관심, 비난 등의 속성을, (2) 자율-통제 차원에서는, 아동에 대한 존중, 자율적 태도, 권위주의, 무조건적 복종 등의 속성을, (3) 성취-비성취 차원에서는 성취에 대한 관심과 격려, 새로운 경험과 호기심에 대한 협조성 등을, (4) 합리-비합리 차원에서는 동기에 대한 관심, 합리적 태도, 일관성, 감정적 태도 등의 속성을 측정한다.

### 4) 자아 개념 척도

송인섭이 제작한 자아개념검사를 임재련<sup>25)</sup>이 요인분석을 통해 수정한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많은 문항 수를 고려하여 2가지(능력, 신체 자아개념) 하위척도를 제외한 5가지(일반, 학급·성취, 사회, 가족, 정서) 하위척도로 구성된 총 102문항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 3. 자료 분석

자료의 기술적 통계를 위하여 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2.0이 사용되었다.

## 결 과

### 1. 어머니 학력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지각된 양육태도, 자녀의 자아개념의 차이

우선 자녀의 남, 녀 성별에 따른 제 종속 변인에서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의 분석에서는 자녀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았다. 어머니 학력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지각된 양육태도, 자녀의 자아개념의 차이를 알아보았을 때(Table 1),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 관련 양육 스트레스'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4.87, p=.01$ ). 반면 '어머니 관련 양육 스트레스'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F=0.86, p=.43$ ). 양육 태도에서는 성취-비성취 차원과 합리-비합리 차원에서 차이가 있었다. 성취-비성취 차원에서는 고졸 이하 집단과 대졸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없었고, 이 두 집단과 대학원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3.47, p=.03$ ). 즉 대학원 졸업자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더 성취 지향적이라고 지각하였다. 또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 태도는 합리적으로 지각되었다( $F=4.08, p=.02$ ). 애정-적대 및 자율-통제 차원에서는 학력에 따른 양육 방식의 차이가 지각되지 않았다. 자아개념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일반, 학급·성취, 정서적 자아개념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각각  $F=3.43, p=.03$ ;  $F=6.88, p=.00$ ;  $F=3.51, p=.03$ ). 사회적 자아개념, 가족 자아개념 차원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1.91, p=.15$ ;  $F=0.39, p=.68$ ).

### 2. 어머니 학력과 자녀의 자아개념 간 관계에 있어서 양육 태도의 매개적 역할

어머니 학력과 자녀의 자아개념 간 관계를 양육 태도가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매개변인에 대한 Baron과 Kenny<sup>26)</sup>의 준거를 따라 단순회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어떤 변수가 모형에서 매개 변수로 작용하려면, 일련의 회귀분석에서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예언변인(어머니 학력)과 종속변인(자아개념)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예언변인과 매개변인(양육태도)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3) 예언변인이 통제되었을 때,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간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4) 매개변인과 예언변인이 동시에 회귀분석에 포함될 때 예언변인과 종속변인 간 원래의 관계성이 없어지거나(완전매개) 약화되어야 한다(부분매개).

우선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회귀분석을 한 결과, 어머니 학력은 일반 자아개념( $\beta=.16, p=.01$ ), 학급·성취 자아개념( $\beta=.22, p=.00$ ), 정서적 자아개념( $\beta=.16, p=.01$ )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사회 및 가족 자아개념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회귀분석을 한 결과,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더 합리적이라고 지각되었다( $\beta=.15, p=.01$ ).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차원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Fig. 1).

따라서 어머니 학력과 일반, 학급·성취, 정서적 자아개념 간 관계를 합리성 차원 양육태도가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Fig. 2). 세 번째 분석에서 어머니 학력을 통제했을 때 합리-비합리 차원 양육태도는 일반 자아개념( $\beta=.45, p<.01$ ), 학급·성취 자아개념( $\beta=.35, p<.01$ ), 정서적 자아개념( $\beta=.39, p<.01$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 단계로, 어머니 학력과 합리성 차원 양육태도를 독립변인으로 동시에 회귀분석에 포함시켰을 때, 어머니 학력과 종속변인인 일반 및 정서적 자아개념 간 관계는 무의미해졌다(일반자아:  $\beta=.16 \rightarrow .09, p=.11$ ; 정서자아:  $\beta=.16 \rightarrow .10, p=.08$ ). 어머니 학력과 학급·성취 자아개념 간 관계의 경우, 원래의 예언/종속변인 간 관계가 약화되었다( $\beta=.22 \rightarrow .17, p<.01$ ). Sobel's test<sup>27)</sup>를 통해 회귀계수  $\beta$  값 감소가 유의미한지 검증한 결과,  $Z=2.22(p=.03)$ 로 유의미하였다. 즉 합리-비

**Table 1.** Results of parenting stress, perceived parenting style and child's self-concept

	Maternal Education	Mean (SD)	F	Maternal Employment	Mean (SD)	F
Mother-related parenting stress	HSG	2.60 (0.42)	.859	Unemployed	2.60 (0.40)	.516
	CG	2.58 (0.44)		Employed	2.56 (0.47)	
	MD & above	2.45 (0.34)				
Child-related parenting stress	HSG	2.39 (0.52)	4.866 <sup>†</sup>	Unemployed	2.31 (0.46)	.290
	CG	2.31 (0.47)		Employed	2.34 (0.53)	
	MD & above	1.98 (0.46)				
Parenting style : Warmth & support	HSG	4.07 (0.52)	2.951	Unemployed	4.08 (0.60)	.183
	CG	4.08 (0.63)		Employed	4.11 (0.57)	
	MD & above	4.44 (0.42)				
Parenting style : Autonomy	HSG	3.56 (0.47)	.673	Unemployed	3.48 (0.59)	1.073
	CG	3.48 (0.60)		Employed	3.55 (0.54)	
	MD & above	3.52 (0.76)				
Parenting style : Achievement	HSG	3.77 (0.48)	3.473*	Unemployed	3.80 (0.46)	.126
	CG	3.77 (0.47)		Employed	3.78 (0.49)	
	MD & above	4.09 (0.47)				
Parenting style : Rationality	HSG	3.78 (0.53)	4.077*	Unemployed	3.82 (0.56)	1.145
	CG	3.87 (0.54)		Employed	3.89 (0.52)	
	MD & above	4.19 (0.57)				
Self-concept : General	HSG	2.80 (0.39)	3.434*	Unemployed	2.89 (0.42)	.409
	CG	2.90 (0.44)		Employed	2.85 (0.43)	
	MD & above	3.06 (0.40)				
Self-concept : School & achievement	HSG	2.70 (0.41)	6.879 <sup>†</sup>	Unemployed	2.88 (0.41)	4.569*
	CG	2.88 (0.42)		Employed	2.77 (0.44)	
	MD & above	3.01 (0.51)				
Self-concept : Social	HSG	2.80 (0.39)	1.906	Unemployed	2.85 (0.42)	.002
	CG	2.86 (0.43)		Employed	2.85 (0.42)	
	MD & above	3.01 (0.47)				
Self-concept : Family	HSG	3.30 (0.40)	.387	Unemployed	3.32 (0.44)	.246
	CG	3.30 (0.49)		Employed	3.30 (0.48)	
	MD & above	3.41 (0.39)				
Self-concept : Emotional	HSG	2.70 (0.48)	3.510*	Unemployed	2.83 (0.46)	1.534
	CG	2.85 (0.46)		Employed	2.76 (0.49)	
	MD & above	2.93 (0.52)				

\* :  $p < .05$ , † :  $p < .01$ . HSG : high-school graduate, CG : college graduate, MD & above : Master's Degree and above

합리 차원의 양육태도가 어머니 학력과 일반 자아개념 및 정서적 자아개념 간 관계에 대해서는 완전매개를, 어머니 학력과 학업·성취 자아개념 간 관계에 대해서는 부분매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양육 스트레스, 지각된 양육 태도, 자녀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어머니의 취업/비취업 조건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지각된 양육태도, 대부분의 자아개념에서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다만 학업·성취 자아개념에 있어서는 비취업 어머니의 자녀들이 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나타냈다 ( $F=4.57$ ;  $p=.03$ ).

### 4.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자아개념 간 관계, 그리고 양육태도의 매개적 역할

Baron과 Kenny의 준거에 따라 단순 및 중다회귀분석을 하여, 양육스트레스와 자아개념 간 관계, 그리고 양육태도의 매개역할을 검증하였다. 1) '어머니 관련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반면, '자녀관련 스트레스'는 모든 하위 자아개념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Table 2). 2) '어머니 관련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자녀관련 스트레스'는 애정-적대 차원과 합리-비합리 차원의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각각  $\beta = -.23$ ,  $p < .01$ ;  $\beta = -.14$ ,  $p = .02$ ). 따라서 '자

어머니 양육 태도의 매개적 역할

Maternal Education	$\beta = 0.158^*$	SC, General
Maternal Education	$\beta = 0.222^\dagger$	SC, School & Achievement
Maternal Education	$\beta = 0.113$	SC, Social
Maternal Education	$\beta = 0.031$	SC, Family
Maternal Education	$\beta = 0.159^*$	SC, Emotional
Maternal Education	$\beta = 0.089$	PS, Warmth & Support
Maternal Education	$\beta = -0.057$	PS, Autonomy
Maternal Education	$\beta = 0.086$	PS, Achievement
Maternal Education	$\beta = 0.151^*$	PS, Rationality

Fig. 1. Direct relations between maternal education and child's self-concept and between maternal education and perceived parenting style. \* :  $p < .05$ , † :  $p < .01$ . SC : self-concept, PS : perceived parenting sty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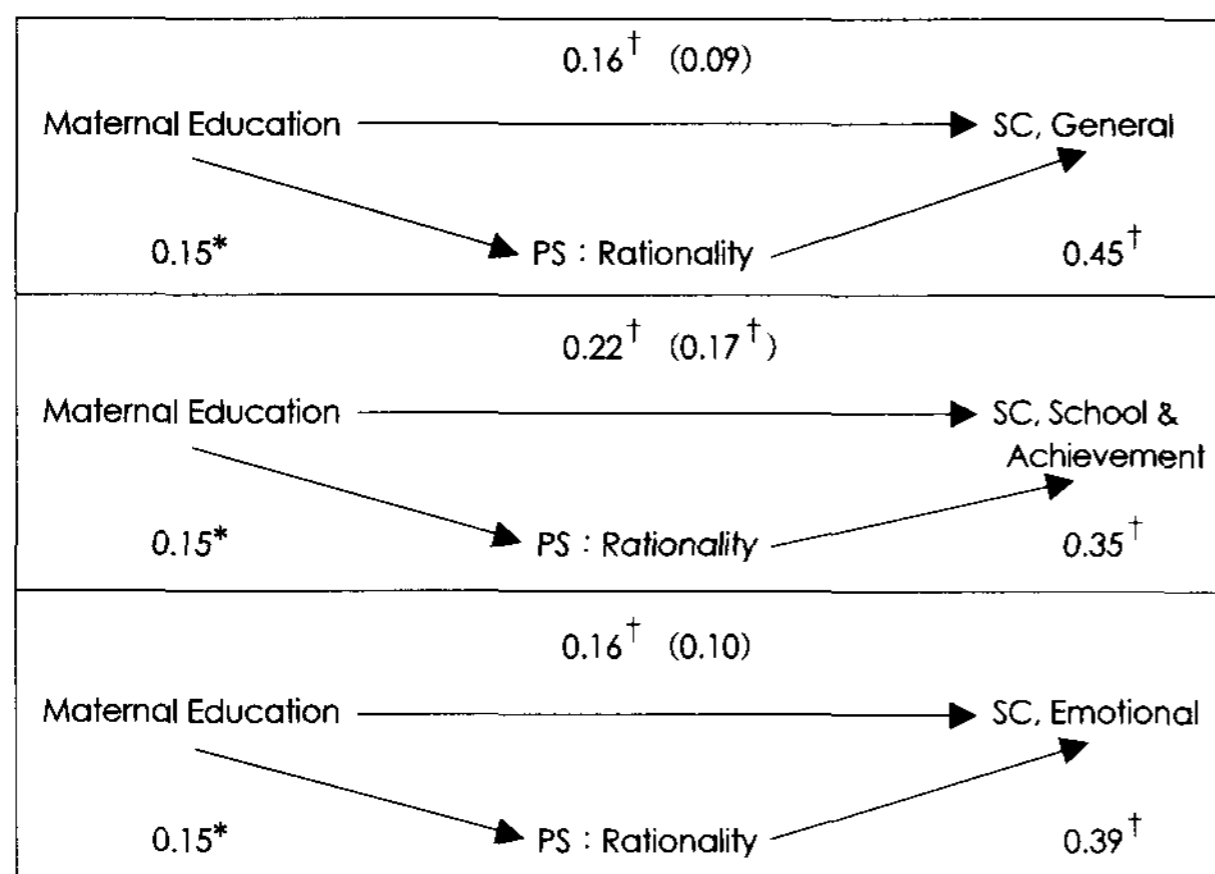


Fig. 2. Mediated model of the effect of maternal education on child's self-concept. The  $\beta$ s between parentheses indicate the effect of the predictor when the mediator is in the model. The coefficients outside of the parentheses refer to the bivariate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 :  $p < .05$ , † :  $p < .01$ . SC : self-concept, PS : perceived parenting style

녀관련 양육스트레스'와 자아개념 간 관계에 애정-적대, 합리-비합리 차원의 양육 태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3) 예언변인 '자녀관련 양육스트레스'를 통제하였을 때, 매개변인인 애정-적대 차원과 합리-비합리 차원 양육태도는 종속변인인 자녀의 자아개념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Table 3). 4) 예언변인 '자녀관련 양육스트레스'와 매개변인 애정-적대 차원 양육태도를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분석에 포함시켰을 때(Regression A), 사회적 자아개념을 제외한 다른 네 하위 자아개념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해졌다. 즉 애정-적대 차원 양육태도가 모학력과 위의 네 자아개념 간 관계에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일반자아 :  $\beta = -.17 \rightarrow \beta = -.04$  ; 학업·성취자아 :  $\beta = -.20 \rightarrow \beta = -.11$  ; 가족자아 :  $\beta = -.21 \rightarrow \beta = -.07$  ; 정서자아 :  $\beta = -.15 \rightarrow \beta = -.05$ ). 사회적 자아개념에 대해서도 원래의 예언변인의  $\beta$ 값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여( $\beta = -.21 \rightarrow \beta = -.11$  ; Sobel's test  $Z = -3.43$ ,  $p < .01$ ), 애정-적대 차

Table 2. Direct relations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self-concept and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style

	Parenting stress	
	Mother related stress $\beta$	Child related stress $\beta$
Self Concept		
General	-0.10	-0.17 <sup>†</sup>
School & Achievement	-0.03	-0.20 <sup>†</sup>
Social	-0.10	-0.21 <sup>†</sup>
Family	-0.08	-0.21 <sup>†</sup>
Emotional	-0.04	-0.15 <sup>*</sup>
Parenting Style		
Warmth & Support	-0.05	-0.23 <sup>†</sup>
Autonomy	-0.01	-0.05
Achievement	-0.02	-0.10
Rationality	-0.05	-0.14 <sup>*</sup>

\* :  $p < .05$ , † :  $p < .01$

원이 '자녀관련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자아개념 간 관계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비합리 차원 양육태도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했을 때(Regression B), 일반 자아개념과 정서적 자아개념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해졌다(일반자아 :  $\beta = -.17 \rightarrow \beta = -.10$  ; 정서자아 :  $\beta = -.15 \rightarrow \beta = -.10$ ). 즉 합리-비합리 차원 양육태도가 예언변인과 이들 종속변인 간 관계에 완전매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학업·성취, 사회, 가족 자아개념에 대해서도 원 예언변인의  $\beta$ 값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학업·성취자아 :  $\beta = -.20 \rightarrow \beta = -.15$  ; 사회자아 :  $\beta = -.21 \rightarrow \beta = -.17$  ; 가족자아 :  $\beta = -.21 \rightarrow \beta = -.14$  / Sobel's test 결과  $Z = -2.16$ ,  $p = .03$  ;  $z = -2.08$ ,  $p = .04$  ;  $z = -2.24$ ,  $p = .03$ ), 합리-비합리 차원 양육태도가 자녀관련 양육스트레스와 이들 세 자아개념의 관계에 대해 부분매개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고 찰

본 연구 결과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학력 어머니일수록 자녀특성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양육자 고유 역할에 대한 부적응과 관련이 있는 어머니 특성 양육스트레스는 학력과 무관하였다. 아마도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 데 따르는 역할 제한이나 사회적 고립 등은 양육자가 쉽게 통제하지 못하는 조건이지만, 자녀특성에 대한 지각적 측면과 상호작용의 내용은 양육자의 교육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것이 양육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들은 양육방식을 더 합리

**Table 3.** Mediation of warmth & support and rationality in the relation between child-related parenting stress and child's self-concept

Criterion	Mediator when controlling for predictor		Predictor after mediator is included	
	PS, Warmth & Support	PS, Rationality	Child-related Parenting Stress	
			Regression A <sup>†</sup>	Regression B <sup>§</sup>
Child's Self-Concept	$\beta$	$\beta$	$\beta$	$\beta$
General	0.56 <sup>†</sup>	0.46 <sup>†</sup>	-0.04 (-0.17 <sup>†</sup> ) <sup>  </sup>	-0.10 (-0.17 <sup>†</sup> ) <sup>  </sup>
School & Achievement	0.41 <sup>†</sup>	0.36 <sup>†</sup>	-0.11 (-0.20 <sup>†</sup> ) <sup>  </sup>	-0.15 <sup>†</sup> (-0.20 <sup>†</sup> ) <sup>  </sup>
Social	0.41 <sup>†</sup>	0.28 <sup>†</sup>	-0.11* (-0.21 <sup>†</sup> ) <sup>  </sup>	-0.17 <sup>†</sup> (-0.21 <sup>†</sup> ) <sup>  </sup>
Family	0.62 <sup>†</sup>	0.52 <sup>†</sup>	-0.07 (-0.21 <sup>†</sup> ) <sup>  </sup>	-0.14 <sup>†</sup> (-0.21 <sup>†</sup> ) <sup>  </sup>
Emotional	0.44 <sup>†</sup>	0.39 <sup>†</sup>	-0.05 (-0.15*) <sup>  </sup>	-0.10 (-0.15*) <sup>  </sup>

\* :  $p < .05$ , † :  $p < .01$ , ‡ : In regression A, child's self concept was regressed simultaneously on warmth & support and child-related parenting stress, § : In regression B, child's self concept was regressed simultaneously on rationality and child-related parenting stress, || : Values in parentheses refer to predictor's original coefficients before the addition of the mediators. PS : Perceived Parenting Style

적이라 지각하였는데 즉, 자녀의 행동의 동기에 관심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일관된 태도를 보이며 이성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한다고 지각하였다. 특히 대학원 졸업 어머니의 아동은 어머니가 성취지향적인 즉, 자녀의 호기심과 새로운 경험에 관심을 보이고 목표 달성을 돕는 등의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였다.

연구 결과,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아개념은 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양육태도에서의 차이가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 결과, 합리-비합리 차원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학력과 자녀의 일반 및 정서 자아개념의 관계에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어머니의 학력이 합리성 양육태도를 통한 간접적 효과(indirect effect)로만 자아개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시사한다. 일반 및 정서적 자아개념은 내용상 학교나 가족 같이 특정 상황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화된 자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고학력 어머니의 보다 일관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인 태도가 자녀의 자아상을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합리적 태도는 고학력 어머니의 자녀의 긍정적인 학업·성취 자아개념도 부분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학력이 높은 어머니들은 어떤 경로로 보다 더 합리적인 양육 태도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본다. Hoffman과 Youngblade<sup>10)</sup>는 어머니의 우울감이 끼치는 자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모의 높은 교육 수준이 완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그 이유로서 고학력 어머니들의 경우 양육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기회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저소득층 어머니에 비해 고학력 어머니의 우울 상태가 전반적으로 보다 양호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가정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 고학력 어머니가 보다 합리적 태도를 갖는 것은 바람직한 양

육에 대한 교육기회가 많기 때문이거나 혹은 높은 학력과 연관되는 경제적 이득으로 더 양호한 정서 상태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갖기 때문일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양육과 자녀의 심리적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 자녀의 자아개념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전반적인 국내 및 국외 연구결과의 방향과 같다. 그런데 Hoffman과 Youngblade<sup>10)</sup>는 사회계층과 같은 사회적 맥락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취업 효과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취업/비취업의 포괄적 조건이 아니라 사회계층과 같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취업 효과를 다르게 만드는 세부 조건들을 탐색하고 그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양육과 관련한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를 양육스트레스로 측정하여 이것이 자녀의 자아개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해보았을 때, 양육자 역할에 대한 부적응과 관련된 '모관련 스트레스'는 자녀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자녀관련 양육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이 관계는 애정-적대 차원의 양육태도와 합리-비합리 차원의 양육태도가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자녀는 양육태도가 적대적, 비합리적이라 지각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이것은 자녀의 자아개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애정-적대 차원은 양육 스트레스와 대부분의 하위 자아개념 간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경향이 있었고, 합리-비합리 차원은 부분매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자녀관련 양육스트레스는 애정-적대 차원 양육태도를 매개로 자녀에 대해 간접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았고, 합리성 차원 양육태도도 자아개념에 따라 부분적이거나 전적으로 양육스트레스 효과를 전달하는 매개작용을 하였다. 자녀관련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태도를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또한 일부 직접적으로도 아동의 자아개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치료적 개입 시 고려해 볼 만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즉 어머니의 자녀특성에 대한 부정적 지각과 상호작용을 검토하여 양육스트레스를 조절하도록 돕고, 또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서의 합리성과 특히 애정·수용성의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고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자녀의 심리적 건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를 위한 자료 조사가 한정된 지역의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를 다양한 사회계층에 대해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다. 특히 어머니의 취업 효과가 사회계층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론을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특성만 가지고 자녀의 자아개념을 평가했지만 아버지의 특성 및 양육태도, 부모 양쪽의 상호작용 측면이 자녀의 심리특성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 결론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양육스트레스 경험이 자녀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아개념은 긍정적인 경향이 나타났고, 이 관계는 합리-비합리 차원의 양육태도가 매개하였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양육과정과 자녀의 심리 특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어머니의 '자녀 관련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자아개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애정-적대 차원과 합리-비합리 차원의 양육태도가 이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역할을 하였다.

**중심 단어** : 어머니 학력 · 양육 스트레스 · 양육 태도 · 자아개념.

## References

- 1) Lee EK. The effect of perceived parental bonding on self-concep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oul: Yonsei Univ.;1995.
- 2) Choi ES. A study on relationships between the social stratification, the parents' child-raising attitude and the scholastic attainment. Iksan: Wonkwang Univ.;1997.
- 3) Nam JH.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of mother's parent-efficacy, parenting style and adolescence's self-regulation ability. Seoul: Sookmyung Women's Univ.;2005.
- 4) Park NH. A study on the stressors and adjustment of housewives at home. Seoul: Dongduck Univ.;1988.
- 5) Baruch GK, Barnett R. Role quality, multiple role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life women. *J Pers Soc Psychol* 1986;51:578-585.
- 6) Kim KH. An ecological approach to analyzing variables in the parenting stress of the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Seoul: Kyunghee Univ.;2000.
- 7) Park JS. The effect of mothers' occupation and perceived rearing attitudes on the adolescent's self-concept. Seoul: Dongguk Univ.; 1986.
- 8) Cho HS. Parenting stress of full-time housewives and employed housewives. Seoul: Yonsei Univ.;1996.
- 9) Lee DT. Effect of mother's employment on the children's perceived attitude of their parents' childrearing, self-concept and academic performance of the children. Yonsei Univ.;1990.
- 10) Hoffman LW, Youngblade LM. Maternal employment, morale and parenting style: social class comparisons. *J Appl Dev Psychol* 1998;19:389-413.
- 11) Bronfenbrenner U, Crouter A. Work and family through time and space. In: Kamerman SB, Hayes CD, editors. *Families that work: children in a changing world*.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c Press;1982. p.39-83.
- 12) Heyns B. The influence of parents' work on children's school achievement. In: Kamerman SB, Hayes CD, editors. *Families that work: children in a changing world*.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1982. p.229-267.
- 13) Gold D, Andres D. Developmental comparisons between 10-year-old children with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Child Dev* 1978;49:75-84.
- 14) Desai S, Chase-Lansdale PL, Michael RT. Mother or market?: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on the intellectual ability of four-year-old children. *Demography* 1989;26:545-561.
- 15) Crnic K, Low C.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Bornstein MH, editor. *Handbook of Parenting: Vol. 5: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 2nd ed.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2002. p.243-267.
- 16) Quittner AL, Glueckauf RL, Jackson DN. Chronic parenting stress: moderating versus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J Pers Soc Psychol* 1990;59:1266-1278.
- 17) Anthony LG, Anthony BJ, Glanville DN, Naiman DQ, Waanders C, Shaffer S.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ur problems in the classroom. *Infant Child Dev* 2005;14:133-154.
- 18) Rohner RP.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Storrs: University of Connecticut;1991.
- 19) Loeber R, Dishion TJ. Boys who fight at home and school: Family conditions influencing cross-setting consistency. *J Consult Clin Psychol* 1984;52:759-768.
- 20) Asarnow JR, Carlson GA, Guthrie D. Coping strategies, self-perceptions, hopelessness, and perceived family environments in depressed and suicidal children. *J Consult Clin Psychol* 1987;55: 361-366.
- 21) Offer D, Ostrov E, Howard KI. *A manual for the Offer Self-Image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3rd ed. Chicago: University

- of Chicago Press:1982.
- 22) **Seo HY.**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of mothers with handicapped children. Seoul: Yonsei Univ.;1992.
- 23) **Abidin RR.** Parenting Stress Index Manual. Charlottesville: Pediatric Psychology Press:1990.
- 24) **Oh SS, Lee JS.**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discipline and affective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 Res Note 1982;11:1-15
- 25) **Lim JL.** A study of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self concept during the adolescent years. Seoul: Sookmyung Women's Univ.;1987.
- 26) **Baron RM, Kenny D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 Pers Soc Psychol 1986;51:1173-1182.
- 27) **Sobel ME.**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Leinhard S, editor. Sociological methodology. San Francisco: Jossey-bass;1982. p.290-312.